

혁명기의 블레이크와 셸리

오민석(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

I.

영국 낭만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의 한 방식은, 그것을 바로 앞 시대 18세기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와 비교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길은 그것을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의 총체적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낭만주의는 1) 문예사적으로는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며, 2) 사회사적으로는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의 큰 우산 아래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와 존슨(Samuel Johnson 1709~1784)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신고전주의의 시대는 정확히 계몽주의(Enlightenment), 합리주의의 시대와 겹친다. 신고전주의자들은 봉건제의 균열, 기술과 산업의 발달, 시장의 확대, 근대 시민계층의 형성의 와중에서 혼란과 타락의 와중에 빠진 영국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그들 문학의 주요 아젠다로 삼았다. 계몽주의 시대의 침병답게 그들은 이성(reason)과 합리성을 중시하였으며, 도덕률(morality)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도덕적 우위에서 비이성적, 비합리적 영국사회를 풍자하고 야유하였다. 그들은 또한 문학적 표현과 사회적 풍습에 있어서 절제(moderation)와 격식(decorum)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내용상으로는 1) 이성과 도덕성에 근거한 사회 풍자를, 2) 형식상으로는 영웅시체 2행 연구(heroic couplet)라는 엄격한 시 형식을 고수하였다.

예) 존슨의 “런던(London)”(1738)

Here Malice, Rapine, Accident, conspire,
And now a Rabble rages, now a Fire;
Their Ambush here relentless Ruffians lay,
And here the fell Attorney prowls for Prey;
Here falling Houses thunder on your Head,
And here a female Atheist talks you dead.
(2nd stanza from 27 stanzas of 263 lines)

영국 낭만주의는 자신들의 앞 세대 시인들인 존슨, 포프 등의 신고전주의와 달리 이성보다 감정(feeling, emotion)을 중시하였으며, 도덕률 대신 자유를 선택하였다. 또한 창작에 있어서도 격식보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훨씬 더 애호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성적 절제보다 감정과 욕망의 자유로운 “범람”을 강조하였다. 낭만주의는 대략 17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지만, 신고전주의와 대립되는 이러한 입장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은 1798년 출판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와 콜리지(Samuel T. Coleridge)의 공동시집 <<서정 담시집 *Lyrical Ballads*>>의 서문에서였다(그리하여 이 서문은 일종의 ‘낭만주의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서문은 워즈워스가 썼는데, 여기에서 워즈워스는 시를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런 범람(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이라고 정의하였다. 블레이크(William Blake) 역시 <<천국과 지옥의 결혼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1790~1793)에서 “아름다움이란 넘쳐흐

름이다(Beauty is exuberance)”라고 정의하였다.

낭만주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시의 지평이 ‘근대적 개인들’의 ‘감성과 개성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옮겨지는데, 이는 낭만주의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에 큰 영향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낭만주의자들이 활동했던 18세기 후반부터 1830년대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아무런 위장 없이 분출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의하면 이 시기는 낭만주의자들에게 “실재에 있어서 굶주림, 고통, 갈등, 사회적 이동 그리고 희망, 에너지, 비전, 헌신 등의 감정으로 생생하게 경험되었으며” 또한 “프랑스 혁명 당시(1789) 블레이크는 32세, 워즈워스는 19, 콜리지는 17, 사우디(Robert Southey)는 15세였으며, 피털루 학살 사건(1819) 때, 바이런(George G. Byron)은 31, 셸리(Percy B. Shelley)는 27, 키츠(John Keats)는 24세였다. 이것은 이 시대가 아무리 둔감한 사람일지라도 무관심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정치적 소용돌이와 논쟁의 시기였음을 알려준다.”

당시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였던 영국은 1832년에는 세계 면방직 생산량의 70%를, 1840년에 제철 생산은 세계의 약 60%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렇듯 국가 단위의 부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국가의 개입의 의한 부의 분배와 사회 안전망의 건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상대적 빈곤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리고 온 사회가 물신 숭배, 화폐 중심의 자본주의적 가치에 지배되었다. 셸리는 이런 맥락에서 부를 “자신들의 이윤을 위하여 다수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소수에 의하여 찬탈된 권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셸리는 또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되었다. 국가라는 배는 무정부라는 괴물과 폭정이라는 소용돌이 사이에서 난파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페인(Thomas Paine)의 표현을 따르면 “혁명이 당시로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질서로 여겨졌을” 정도였으며, 예를 들어 “블레이크가 생존했던 1757년에서 1827년의 70년 동안 영국이 무려 35년간 전쟁 중에 있었다는 사실(J. Bronowski, *William Blake and the Age of Revolution* 14)”은, 당시가 얼마나 큰 격변의 시기였는가를 말해준다. 이처럼 영국 낭만주의 문학은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와중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제반 모순과 군주제로 대표되는 봉건적 가치에 대한 저항의 와중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프랑스혁명이 상징하는 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의 구현 또한 그들의 시가 보여준 분투의 내용들이었다. 또한 프랑스혁명정신이 공포와 억압의 정치로 변질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상화했으며 열렬히 참여했던 현실 정치에 대해 극단적인 피로와 혐오감을 갖게 되었고, 현실에 대한 환멸은 이들의 시선을, 어린 시절, 자연, 꿈과 유토피아, 좋았던 먼 옛날(중세) 등, ‘지금, 이곳(now, here)’의 현실이 아닌, (어찌 보면) 현실과 대척점에 있는 세계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현실에서 상실한 것을 이와 같은 비(非)현실의 공간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들의 시적 경향이 후대 문학사가들에 의해 ‘낭만주의’로 호명되는 것은 주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II.

블레이크(1757~1827)의 시세계를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소년기의 습작인 <<시적 소묘 *Poetical Sketches*>>(1783) 이후, <<순수의 노래 *Songs of Innocence*>>(1789), <<천국과 지옥의 결혼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1793), <<순수와 경험의 노래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1794) 등 대중들에게 널리 읽히는 짙막한 초기 시들과 <<네 조아들 *Four Zoas*>>(1797~1807), <<밀턴

Milton>>(1804~1810), <<예루살렘 *Jerusalem* >>(1800~1820) 등 후기의 시들로 대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기의 시들은 블레이크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사적인 신화론(private mythology)’ 혹은 신화 체계(mythic system)를 담은 장편 시들로서 매우 복잡한 상징과 은유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시들이 대체로 이해하기 쉬움에 반하여, 후기의 신화적인 시들은 주해서를 동원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적이다. 여기에 블레이크가 시와 함께 그렸던 동판화에 대한 해석의 문제까지 끼어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초기 시와 후기 시 사이의 연속성/불연속성의 문제도 논자들 사이에 견해가 분분하다. 본 강연에서는 일반 독자들에게 훨씬 많이 읽히는 초기 시를 중심으로 블레이크의 시 세계를 살펴본다.

블레이크는 다른 낭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프랑스혁명, 미국혁명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당대의 삭막한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물(<<윌리엄 블레이크: 환상의 아나키스트 *William Blake: Visionary Anarchist*, 1988)에서 마샬(Peter Marshall)은 블레이크를 (당대의 정치철학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고드윈(William Godwin)과 더불어 현대 아나키즘의 선두주자로 평가하였다. 블레이크가 실제로 어느 수준 혹은 정도의 아나키스트였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정치철학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가 당대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는 제도로서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유연애”를 옹호하였으며, 제도로서의 결혼(국가에 의해 공인되는)을 폐쇄적이고도 “합법적인 매춘행위”라고 주장한 (초기 페미니스트인)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지만, 제도로서의 종교가 갖는 폭력과 위선, 반(反)성경적 특징에 대해서는 일관된 비판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한 제도로서의 학교의 가치도 부정하였는데, 제도 학교가 근본적으로 반(反)교육적이며,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전시켜주는 커녕 오히려 그 자체 심각한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이 초래한 착취와 억압의 현실에 대해서도 환멸에 가까운 비판의식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볼 때 세계에 대한 블레이크의 부정성(negativity)의 강도는 그가 꿈꾸는 세계의 이상성(ideality)과 맞물려 있다. 초기 시집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이항 대립(binary opposition)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순수(innocence)”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경험(experience)”의 세계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따라서 커지고, “천국(heaven)”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지옥(hell)”에 대한 환멸의 강도가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이원성(duality)은 사실 블레이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낭만주의 시인들의 정서적 구조와 상통하는 것이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어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가지고 (단기간에) ‘개혁 불가능한’ 현실에 뛰어든 자들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열정적이고 (때로 극단적인) ‘래디컬(radical)’들이었고, 현실에 대한 환멸의 깊이만큼 서둘러 현실을 떠났다. 블레이크도 크게 예외적이지 않은 것이, 그의 후기의 신화시들 속에서 구체적 현실은 추상화되었고, 세계는 상징의 외피를 더욱 두껍게 입게 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작은 현실’을 더 ‘큰 체계’로 편입시킨, 말하자면 블레이크식 세계의 완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동력을 잃은 자가 찾은 거대한 안식처로서의 신화의 세계이었다.

다만 블레이크는 초기 시에서도 비교적 단순한 이항대립의 개념으로 세계를 읽어냈지만(<<순수와 경험의 노래>>) 세계가 이항대립이 아니라 반대항목들의 불가피한 공존, 이질적인 것의 동시적 존재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의 발전(<<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물론 <<순수의 노래>>에도 어두운 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순수의 노래>>에 나오는 시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경험”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순수한 원형으로서의 이상적인 세계를 다룬다. 이에 반해 나중에 <<순수와 경험의 노래>>에 추가된 <경험의 노래>는 실물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원형이 아니라 체제에 의해 망가진 어두운 세계의 모순을 그려냄으로써 ‘순수의 노래’와 대조를 시킨다.

성목요일(聖木曜日)이었다 그들의 순수한 얼굴은 깨끗했고
빨강, 파랑, 초록의 옷을 입고 쌍쌍이 걸어가는 아이들
(…)

얼마나 대단한 무리처럼 보였는지 이 런던 시의 꽃들이
한 동아리로 자리해 자신들 고유의 광휘를 발하며 앉아 있다
무리들의 웅성거림이 거기 있었으나 양들의 무리였다
순수한 손길 들어 올리는 수천의 어린 소년 소녀들
(…)

그러니 동정심을 지닐지라, 대문에서 천사를 내몰지 않도록
-「聖목요일」 부분

이것이 보기에 신성한 일인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아기들이 비참한 꼴로
냉혹하고 인색한 손길로 먹여지니?

저 떨리는 울음이 노래인가?
그것이 즐거움의 노래일 수 있나?
저렇게 많은 아이가 가난한가?
궁핍의 땅이다!
-「聖목요일」 부분

같은 제목의 두 시는 각각 <<순수의 노래>>와 <경험의 노래>(<<순수와 경험의 노래>>)에 실린 것들이다. 첫 번째 시가 경험의 세계에 진입하기 이전의 훼손되지 않은 순수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면 동일 제목의 두 번째 시는 모순으로 가득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다. <<순수의 노래>>와 <경험의 노래>에는 이렇게 동일 제목의 이항대립을 이루는 시들이 여러 편 있다.

<<경험의 노래>의 시들 중 가장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은 바로 「런던」이다. 참고로 이 작품은 <<순수의 노래>>에 그 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모든 법제화된 거리들을 방황하네
가까이 법제화된 템스 강이 흐르는 곳.
만나는 얼굴마다 보네
병약함의 흔적을, 비탄의 흔적을.

모든 사람의 절규 속에서,
모든 아기들의 두려움 가득한 울음 속에서,

모든 목소리, 모든 금지 속에서,
나는 듣네 마음이 벼려 낸 족쇄를

어떻게 굴뚝청소부들의 외침 소리가
검게 변하는 교회를 오싹하게 하며,
불운한 병사의 한숨 소리가
궁궐의 벽에 핏빛으로 흘러내리는지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듣네 한밤중 거리에서
어떻게 젊은 창녀의 저주가
갓 태어난 아기들의 눈물을 메마르게 하고
역병으로 결혼영구차를 마르게 하는가를.

I wander thro' each charter'd street,
Near where the charter'd Thames does flow.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an,
The mind-forg'd manacles I hear

How the Chimney-sweepers cry
Every black'ning Church appalls,
And the hapless Soldiers sigh
Runs in blood down Palace walls

But most thro' midnight streets I hear
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
Blasts the new-born Infants tear
And blights with plagues the Marriage hearse

이 시는 당대 영국 사회를 바라보는 블레이크의 앵글을 잘 보여준다. 그가 볼 때 영국의 모든 공간은, 심지어 강물까지도 “법제화되어 있다(charter'd).”(legalism, 율법주의, 관료적 형식주의). 거기엔 자유도 없으며 그 공간 안의 사람들은 병약과 비탄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과 아기들이 금지의 벽 속에서 절규하고 운다. 유아노동에 동원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타락한 교회를 오싹하게 만들고, 불운한 병사들의 피눈물이 군주의 거주공간인 벽을 타고 흐른다. 버림받은 창녀들은 제도적인 결혼생활과 그로 인한 출산에 죽음의 저주를 퍼붓는다.

<<순수의 노래>>와 <경험의 노래>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유는 <<천국과 지옥

의 결혼>>에서 지양된다. 블레이크가 볼 때 존재는 순수/경험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인간과 세계는 이질적인 것의 공존이라는 ‘모순’ 안에서 존재한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세계의 복합성에 대한 훨씬 깊은 이해를 만날 수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세계는 천국/지옥의 이분법이 아니라, 그것들의 “결혼” 상태에서 존재한다.

모든 성경 혹은 신성한 기록은 아래 오류들의 원인이었다.

1. 인간이 두 개의 실재하는 존재 원칙, 즉 육신과 영혼을 가진다.
2. 악이라고 불리는 활력은 육신으로부터만 나오고, 선이라 불리는 이성은 영혼으로부터만 나온다.
3. 하느님은 활력을 추구하는 인간을 영원히 고문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상반되는 아래의 것들이 진실이다.

1.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분리된 육신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시대 영혼의 주된 통로인 오감에 의해 파악된 영혼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2. 활력이 유일한 생명이며 육신으로부터 나오고, 이성은 활력의 경계 혹은 외부 경계이다.
3. 활력은 영원한 희열이다.

-「악마의 목소리」 부분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 나오는 시들은 이 시처럼 대부분 잠언적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시에서 “활력”이라 번역된 부분의 원어는 “Energy”이다. 블레이크가 말하는 에너지는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본능(instinct)” 혹은 “리비도(Libido)”이고, 라캉(Jacques Lacan)식으로 말하면 “욕망(desire)”이다. 위 시에서 블레이크는 욕망/이성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있다. 욕망/이성의 이분법 위에서 욕망(“육신”)를 거부하고 이성(“영혼”)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18세기 합리주의와 제도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유구한 가르침이다. 블레이크는 육신을 “오감에 의해 파악된 영혼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나아가 그것을 “영원한 희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욕망을 해방시킨다. 이와 같은 ‘해방의 정서’는 억압을 거부하는 프랑스혁명의 ‘자유’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III.

바이런, 키츠와 더불어 낭만주의 2세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던 셸리(1792~1822) 역시 당대의 혁명적인 분위기와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셸리는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비해 훨씬 더 이상 파괴적이어서 대부분의 제도권 출판사들이나 잡지사들은 그의 작품을 출판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의 글을 게재했다가 신성모독이나 폭동을 선동하는 것으로 의심받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무신론의 필연성』이라는 소책자를 간행했다가 옥스퍼드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례나, 첫 번째 부인이 임신상태에서 익사한 바로 바로 다음 달 애인이었던 메리 고드윈(Mary Godwin, William Godwin의 딸)과 결혼한 일, 또 본인도 30세의 젊은 나이에 스페지아 만(Gulf of Spezia)에서 폭풍우를 만나 익사한 사실 등은 셸리의 삶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그를 낭만적 부랑아만으로 규정하긴 힘들다. 그는 고드윈을 위시한 당대의 진보적 사상가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으며, 그의 정치적, 사회적 비평은 노동자들의 권리장전 운동(Chartermism)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셸리의 경제에 관한 산물들은 마르크스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폭력

투쟁에 대한 그의 글들은 간디(Mahatma Gandhi)와 톨스토이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블레이크뿐만 아니라 셸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깊은 개입과 동시에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한 탐닉이라는 이원성(duality)이다. 블레이크에게 있어서 ‘다른 세계’가 신화의 세계였다면, 셸리에게 있어서 다른 세계는 서정적 초월의 세계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실에서 가르쳐지는 셸리의 시들은 「오지만디아스 Ozymandias」(1818), 「서풍부 Ode to the West Wind」(1819), 「종달새에게 To a Skylark」(1820)처럼 완성도 높은 서정시들이다. 그러나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셸리가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탐닉했다면, 그를 그 세계로 보낸 것은 바로 ‘지금, 이곳’의 현실에 대한 환멸이었던 것이다. 블레이크가 「런던」에서 보여주었던 환멸의 세계는 셸리에게도 존재했다. 그의 「영국인들에게 To the Men of England」(1819)를 보라.

영국인들이여 왜 당신들을 학대하는
군주들을 위해 쟁기질을 하는가?
왜 땀 흘려 수고해 옷감을 짜
당신의 압제자들이 비싼 옷을 입게 만드는가?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신들의 땀을 빼는—아니, 당신들의 피를 빼는,
배은망덕한 게으름뱅이들을 위하여
먹이고 입히고 아끼는가?

(...)
당신이 뿌리는 씨앗을 다른 사람이 수확한다,
당신이 발견한 부를 다른 사람이 가진다,
당신이 짠 옷을 다른 사람이 입는다,
당신이 버린 무기를 다른 사람이 지닌다.

씨를 뿌리되, 그 어떤 폭군도 수확하지 못하게 하라,
부를 발견하되, 그 어떤 사기꾼도 수확하기 못하게 하라,
옷을 짜되, 그 어떤 게으른 자도 입지 못하게 하라,
무기를 버리되,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녀라.

(...)
쟁기와 삽과 팽이와 방직기로,
네 무덤을 따라가고 네 무덤을 지어라,
그리고 네 수의를 짜라, 그 잘난
영국이 네 무덤이 될 때까지!

Men of England, wherefore plough
For the lords who lay ye low?
Wherefore weave with toil and care
The rich robes your tyrants wear?

Wherefore feed and clothe and sav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Those ungrateful drones who would
Drain your sweat -- nay, drink your blood?
(.....)

The seed ye sow another reaps;
The wealth ye find another keeps;
The robes ye weave another wears;
The arms ye forge another bears.

Sow seed, -- but let no tyrant reap;
Find wealth, -- let no imposter heap;
Weave robes, -- let not the idle wear;
Forge arms, in your defence to bear.
(.....)

With plough and spade and hoe and loom,
Trace your grave, and build your tomb,
And weave your winding-sheet, till fair
England be your sepulchre!

이 시는 프롤레타리아화된 절대 다수의 영국인들을 향한 정치적 선동가이다. 단순한 문장과 규칙적인 각운(aabb)은 쉽게 이 시를 낭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시는 마치 노래처럼 가볍고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처럼 선동적이고 과학적이다. 마지막 연은, 투쟁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현실을 바꾸지 않으려면 차라리 자신들의 노동수단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파라는 선언으로 끝난다. 셸리가 시인으로서 당대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시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시적 개입은 셸리 시의 전부가 아니다. 앞에 언급한 셸리의 '대표작'들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가 갖는 힘, 역사의 덧없음, 초월적 서정에 대한 갈망 등을 담고 있다. 참고로 「종달새에게」를 보자.

반갑구나, 너 쾌활한 정령이여!
너는 새가 아니리라,
하늘과 그 근방에서
가슴 넘쳐흐르는 감정을
타고난 솜씨의 가락으로 쏟아내는 너는.

지상으로부터 더욱더 높게
너는 솟구쳐 올라가니

불처럼 솟아오르는 한 점의 구름이랄까.
너는 창공에서 비상하니
항상 노래하며 날아오르고 항상 날아오르며 노래하는구나.

지는 해의
금빛 찬란한 광휘 속에서
구름은 반짝이고
너는 그곳에 떠서 달리는구나,
치달기 시작한 환희의 흔처럼 지칠 줄 모르고.

너 날아가는 주위에선
연보랏빛 저녁 녹아 가고,
대낮의
하늘의 별처럼
너 보이지 않으나 귀 찢는 네 환희 들리는구나.
(민음사판 번역)

Hail to thee, blithe Spirit!
Bird thou never wert,
That from Heaven, or near it,
Pourest thy full heart
In profuse strains of unpremeditated art.

Higher still and higher
From the earth thou springest
Like a cloud of fire;
The blue deep thou wingest,
And singing still dost soar, and soaring ever singest.

In the golden lightning
Of the sunken sun,
O'er which clouds are bright'ning,
Thou dost float and run:
Like an unbodied joy whose race is just begun.

The pale purple even
Melts around thy flight;
Like a star of Heaven,
In the broad day-light
Thou art unseen, but yet I hear thy shrill delight,
-「종달새에게」 부분

앞의 시와 달리 이 시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을,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 있다. 이 시에서 셸리는 최고의 희열이 “종달새”가 상징하는 바, 현실 너머, 육체 너머에 있다고 본다. 무엇이 혁명의 시인으로 하여금 ‘현실 너머’의 다른 세계를 꿈꾸게 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블레이크와 셸리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시인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래디컬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대척점에 있는 자연이나 미(beauty)의 세계, 어린 시절의 순수, 꿈의 세계에 대한 탐닉, 심지어 ‘좋았던 옛날(old good days)’로서 중세를 동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급진성과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들의 ‘낭만적’ 탐닉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그들을 현실 너머로 보낸 동력이 바로 현실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참여/환멸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브로우닉(Charles Breunig)은 『혁명과 반동의 시대, 1789~1850 *The Age of Revolution and Reaction, 1789~1850*』에서 낭만주의자들의 중세 취향을 “추하고 물질주의적이며 냉혹한 산업사회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중세 사회를 실제보다 훨씬 이상적인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과연 중세는 근대보다 훨씬 행복한 공간이었나? 이런 질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시 낭만주의자들의 현실인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령,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모두 유사한 범주에 해당된다. 어린 시절은 정말로 그렇게 순수한가? 자연엔 조화와 평화만 존재하는가? 혁명기 낭만주의자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양날의 칼이 필요하다.